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보도 일시	2023. 3. 12.(일) 11:00 < 3.13.(월) 조간 >	배포 일시	2023. 3. 10.(금)
담당 부서	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재은 (044-203-5240)
		담당자	사무관 김광수 (044-203-5253)

취약계층 등유·액화석유가스(LPG)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 신청 시작

-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만 2천원까지 지원 -
-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**취약계층 등유·액화석유가스**(이하 'LPG') **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·접수를 3.10.(금)부터 시작**하였다고 밝혔다.

○ (**난방비 신청이 가능한 가구**) 지원대상은 **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·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**로,

- '22년 등유바우처,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(동절기 연료비)를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

○ (**신청방법**) **3월 10일 ~ 4월 7일,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**

-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·통장·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

○ (**지원대상 확정**)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및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,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등유·LPG 난방 여부 조사 후 결정

□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**카드사에 전용(專用) 카드를 신청하여 발급**(기초생활수급자)받거나 **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**(차상위계층)해 **'23년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·LPG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**하면 된다.

○ (**세대별 사용가능 금액**) **59만 2천원**

- 다만, '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59만 2천원에서 '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*

* '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334,800원을 지원받은 2인 가구에는 592,000원에서 334,800원을 차감한 금액인 257,200원 지원

○ (**지난 겨울 난방용 등유·LPG 구매비용도 환급 가능**) 카드 또는 쿠폰을 6월 30일까지 사용 후 **잔액이 남은 세대에 한해 잔액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 제출 시 등유·LPG 구입비를 환급***

* 예시) 592,000원의 쿠폰을 수령한 세대가 30만원의 쿠폰을 등유 구입에 사용하고, '22년 12월 31일에 신용카드로 구입한 등유 구매영수증(구매액 : 30만원)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시 잔액인 292,000원 범위 내에서 현금 정산 가능

□ **등유·LPG 공급자**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 후 **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·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**하면 **시·군·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금으로 정산**하며, 공급자가 부담하는 **수수료는 없다.**

○ **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**하고,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하므로 공급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없음

□ 이번 지원은 **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**으로, **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상향, 도시가스·지역난방 요금 할인 확대 등과 함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일환**이다.

○ 산업통상자원부는 "이번 지원이 **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**인 만큼 지자체·에너지업계(주유소협회, LPG판매협회 등)와 협력하여 **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계획**"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재은 (044-203-5240)
		담당자	사무관 김광수 (044-203-5253)
	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	책임자	과 장 박덕열 (044-203-5230)
		담당자	사무관 조현진 (044-203-5234)
	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	책임자	과 장 김대일 (044-203-5220)
		담당자	사무관 명지혜 (044-203-522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